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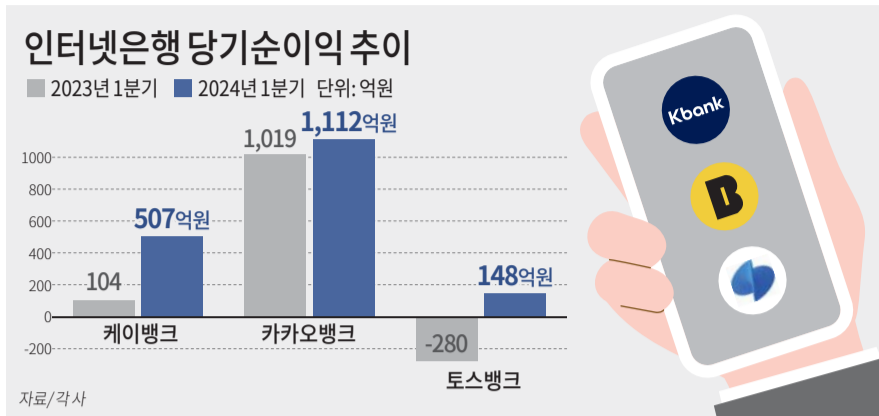
‘대출 갈아타기’ 효과… 인뱅 3社,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
1분기 순익 1767억… 109% 꺾음
비대면 갈아타기로 주담대 5조 ↑
당국, 이달 경쟁촉진 중간평가 실시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전월세자금대출 포함)이 약 5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1분기 순이익은 176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43억원)과 비교하면 92.4% 증가한 수준이다.

케이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07억원으로 전년 동기(104억원)와 비교해 388% 늘며 분기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도 1112억



원으로 같은 기간 9%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48억원으로 1년 전 순손실(-280억원)을 기록한 데서 흑자전환했다. 처음 흑자를 달성한 지난해 3분기(86억원)와 비교하면 72%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면

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인터넷은행에 고객이 몰렸다”며 “주후 대환대출할 상황을 고려해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등 추가 옵션이 더해진 상품을 신규 가입하는 고객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분기 인터넷은행 3곳의 주담대(전월세보증금대출) 잔액은 31조 396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조 7700억원 늘었다. 1년 전(16조 74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의 주담대 잔액이 인터넷은행보다 14배 많지만 같은 기간 1.5%(431조 9299억원→438조 5566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르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1분기 주담대 잔액은 6조 2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24조 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늘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하고, 주담대는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다. 토스뱅크의 1분기 전월세보증금대출 잔액은 956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증가하며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위험가중자산비중(RWA)이 낮은 대출 이용이 늘며 수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자산은(RWA)은은행이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계산하는 것으로, 신용대출보다 주담대가 상대적으로 만기기간이 길어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낮다. 위험가중자산비중이 낮은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자기자본 감소요인이 제거돼 성장여력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업 내 메기역할을 수행했는지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인 은행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신용자대상 신용공급 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이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DSS)을 활용해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왔는지, 주담대 영업은 적절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1분기 당국이 새로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소화했다”면서 “연내 평균 30%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비트코인, 마곡發 공포… 장기 영향 제한적”

마운트곡스발 매도 우려에 하락세
전문가, 물량 소화로 불안요소 제거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마곡)발 대량 매도 우려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 75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2주 사이 5.1%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영향으로 약 50일만에 7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최근 마운트곡스 이슈로 다시 하락전환됐다.

마운트곡스는 지난달 28일 자체 콜드 월렛에서 비트코인 14만 1686개를 신규 지갑으로 이체했기 때문이다. 총 13조 4389억원 규모로, 전체 가상자산 지갑 보유량 순위로는 3위에 달한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 설립 당시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70%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 거래소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당시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85만개를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산했고, 이후 오래된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현재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상환 절차를 밟고 있다.

투자자들은 마운트곡스가 상환을 시작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마운트곡스가 일부 채권자에게 현금(엔화) 채권 상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은 곧바로 급락했다. 13조원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게 될 경우 매도세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마운트곡스 상환절차 마감일이 오는 10월 31일인 만큼, 시장에 충격

을 줄이기 위해 상환물량을 일정시기 나눠서 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맨은 “마운트곡스 이체 물량이 채권자에게 상환되더라도 전량 매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마운트곡스 이슈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소재로, 실제로 채권자발 매도가 있더라도 단기 조정 수준의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마곡 이슈로 단기적인 하락은 발생할 수 있지만 물량이 소화될 경우 구간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요소가 제거돼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셀프(대규모 매도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송파 가락삼익맨손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 송파 가락삼익맨손 재건축 수주

‘디에이치송파센터마크’ 제안
16개동 1531세대 규모 탈바꿈

현대건설이 송파 가락삼익맨손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 송파구 가락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가락삼익맨손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세대 규모의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6341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가락삼익맨손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

크’를 제안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남한산성과 도심 경관을 파노라마로 누릴 수 있는 최상층의 스키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세대 맞춤형이 가능한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거실의 수) 이상 설계, 4개의 테라스와 6BAY와이드 뷰를 적용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세대를 제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이달 첫 주 전국 7곳서 3721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721가구(일반분양 338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현덕면 ‘신영지웰평택화양’,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 충남 계룡시 염사면 ‘계룡펠리피아’ 등에서 청약이 진행 중이다.

건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움그레이트’,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비스타동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신영씨앤디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평택화양지구 9-1BL)에서 ‘신영지웰평택화양’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 9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38번 국도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안중대로(예정) 및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예정) 개통을 통해 광역 이동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바로 앞 초등학교 및 중심상업지역 부지가 예정돼 생활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근교에 아산국가산업단지 및 평택포승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직주근

접 여건이 양호하다.

서한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일원(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움그레이트)을 분양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 총 1138가구 규모다.

단지는 반경 1km 내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을 통해 평택지체역(SRT)을 이용한 광역이동이 용이하며, 민세중을 비롯해 개교 예정인 민세초(2024년 9월), 송탄고(2025년 3월)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인근에 홈플러스 평택점, 서정리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생활이 편리하고, 송탄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직장 여건도 우수하다.

/김대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부실채권 1360억 매각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지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1360억원 규모를 매각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무담보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자산유동화 방식 공동매각’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매각을 통해 저축은행 18곳에서 약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달말까지 ▲우리금융F&I ▲키움F&I ▲하나F&I 등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12월말 조성한 개인무담보 매각채널에 더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건전성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공동매각 방식을 지속 활용해 부실채권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